

Are You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3. 10. 10 (화)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Strategy Idea

중국, 전술적 낙관

칼럼의 재해석

'스위프트노믹스(Swiftonomics)',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Strategy Idea



▲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02. 6454-4883
xuehua.cui@meritz.co.kr

중국, 전술적 낙관

- ✓ 4분기 중국 경기는 기저효과 딛고 완만한 회복 예상, 단 V자형보다 U자형 회복 가능성 높아
- ✓ 경기보다 중요한 것은 미중갈등 단계적 완화 가능성: 11월 APEC 정상회담이 1차 변곡점
- ✓ 연말까지 중국증시 전술적 낙관, 과거 경험상 평균 약 10-13% 지수 반등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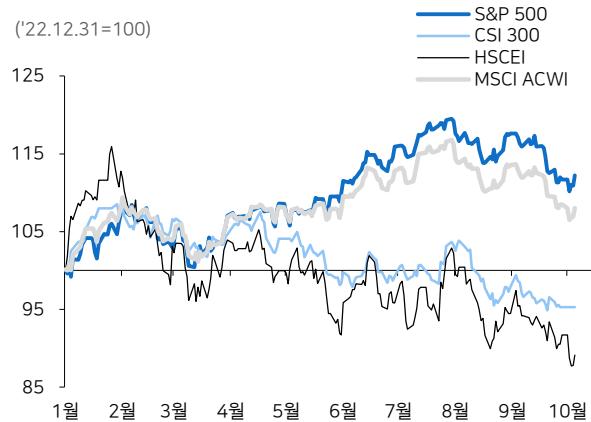
중국 주식, 이제 사도 될까?

올해 중국증시 약세 지속,
가격 매력 부각

올해 중국 본토·홍콩증시는 연초대비 각각 4.7%(CSI300), 10.9%(홍콩H 지수) 하락하며 해외 주요 증시대비 부진했다(10/6일 기준). 특히 21년부터 시작된 홍콩증시 약세는 3년째 이어졌고, 미국채 금리 변동성으로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6,000선마저 하회했다. 현재 MSCI CHINA 지수의 주식 위험 프리미엄은 6.7%p로 '18년 이후의 최고치까지 상승해 가격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중국 주식을 사도 될까?

현재 국면에서 중국 증시가 반등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1) 뚜렷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거나, 2) 미중 갈등 완화 및 위안화 절상이다.

그림1 2023년 중국 본토·홍콩증시: 해외대비 부진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MSCI CHINA 지수의 주식 위험 프리미엄(ERP)



자료: Refinitiv,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경기: 순환적 회복 vs. 구조적 둔화

경기지표 완만한 반등

고무적인 것은 최근 중국 경기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제조업 PMI 기준점 상회

9월 관방 제조업 PMI는 50.2로 6개월 만에 다시 기준점(50)을 상회했다. 8월부터 강화된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이 중 생산이 52.7로 가장 강하게 상승했고, 신규주문 지수도 50.5로 기울기가 완만하지만 2개월째 기준점(50) 상회 중이다(그림 4). 중국 제조업은 힘든 구간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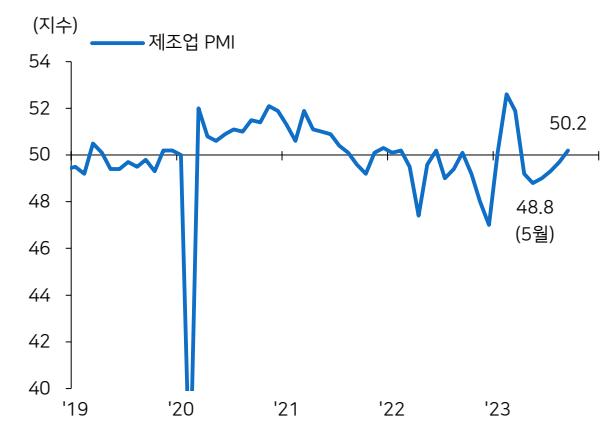
국경절 연휴 소비, 과거보다 개선

연휴기간의 여행 소비도 견조했다. 추석 · 국경절 연휴기간(총 8일) 중국 내 여행자 수는 8.26억명으로 2019년 동기간의 104%, 여행 총 매출은 2019년 동기간의 102%까지 회복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그림 5). 인당 여행 소비 지출액은 2019년 동기간의 96%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춘절 이후의 부진한 흐름에서 개선되는 모습이다(그림 6).

기저효과와 Re-stocking 수요로
4분기 지표 추가 개선 기대

이런 완만한 회복 추세는 작년 동기간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며 올해 4분기 추가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은 작년 11월에 리오프닝을 발표했지만, 집단감염으로 작년 4분기 GDP 증가율이 2.9%에 그쳤다(3Q22 3.9%). 또한 현재 낮은 재고수준에서 생산자물가(PPI) 상승률이 낙폭을 축소하고 있어 기업들의 Re-stocking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7). 정책당국도 연간 5.0%의 성장을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소순환 관점에서 4분기 완만한 개선 방향은 의심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림3 중국 9월 관방 제조업 PMI: 6개월 만에 기준점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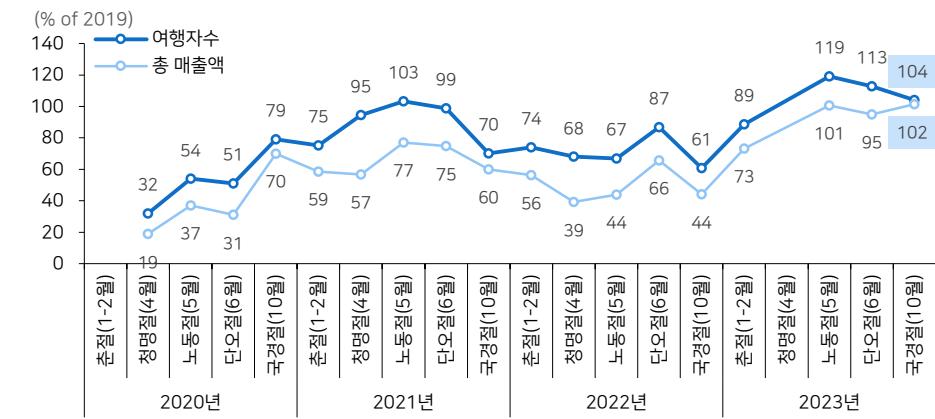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생산과 신규 주문지수 모두 기준점(50)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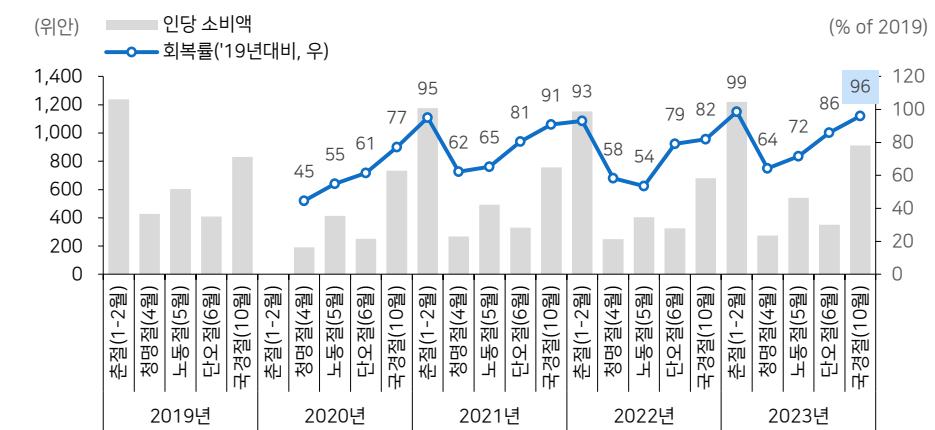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중국 연휴기간 국내 여행자수와 여행 총 매출액: 모두 2019년 수준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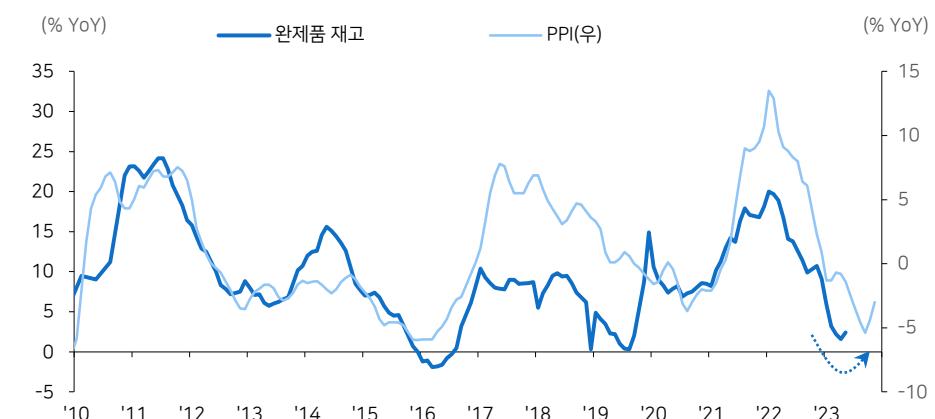
자료: 문화여행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중국 연휴기간 국내 인당 여행 소비 지출액도 2019년 수준까지 접근, 완만하게 개선



자료: 문화여행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PPI 반등에 기업들의 Re-stocking 수요도 바닥 찍고 반등할 전망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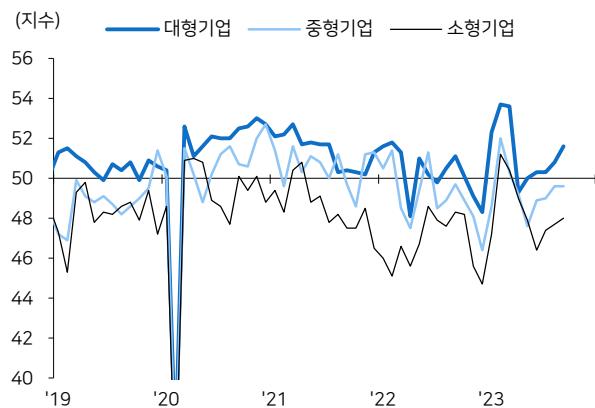
단 방향성보다 회복 기울기 중요
지표 호조에 불안요인 잔존

4분기 비제조업 경기 둔화는
제조업 경기 회복 일부 상쇄

그러나 중국 경기의 관건은 방향성보다는 기울기이다. 최근 완만한 경기 회복에도 세부 지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관방 제조업 PMI 내 대형 기업과 중·소형 기업간의 체감 경기가 현저히 다르다(그림 8). 9월 제조업 PMI 반등에도 구매물가가 59.4까지 급등한 영향이 큰 반면 고용이나 완제품 재고의 반등은 미미했다. 구매물가 상승은 향후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좋게만 보기 어렵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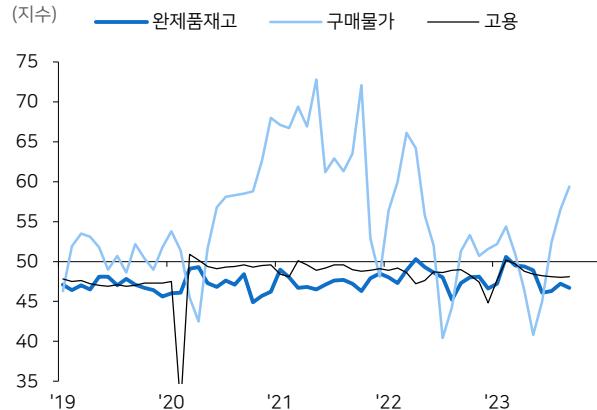
연휴기간 중국인의 국내 여행 소비도 과거대비 견조했지만, 당초 중국 문화여행부가 예상했던 여행자수(8.96억명) 및 매출액(7,825억 위안)을 각각 7.8%, 3.7% 하회했다. 한편 중국의 서비스업 수요는 통상 4분기에 계절적으로 둔화되었다(그림 10). 이는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반등해도 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며 전반 경기의 회복 기울기는 약해질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기업의 Re-stocking 수요를 대변하는 (신규주문-재고) 선행지표 또한 2022년 이후의 반등폭을 상회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그림 11).

그림8 단 제조기업들의 규모별 체감 경기는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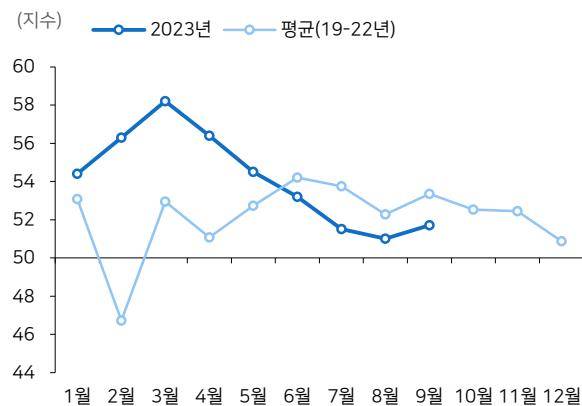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9월 제조업 PMI 반등 중 구매물가 급등 영향이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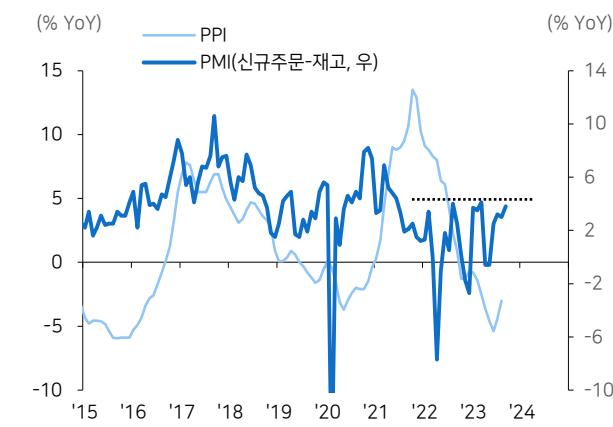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중국의 비제조업 PMI: 계절적으로 4분기는 하락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신규주문-재고) 선행지표의 추가 상승 여부 불투명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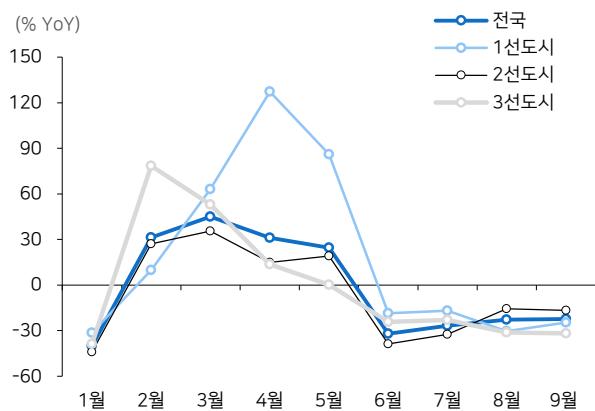
구조적 경기둔화 요인들은 아직 개선세가 확인되지 않아

내년 중국 성장을 전망치 4.5%, 한 단계 레벨 다운

나아가 중국 경기둔화를 초래했던 구조적인 요인도 아직 뚜렷한 회복 시그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8월부터 중국 정책당국이 본격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했음에도 9월 30개 주요도시의 월간 거래면적 증가율은 -22.3%로 6~7월의 낙폭을 축소하는 수준에 그쳤다(그림 12). 무엇보다 중국의 주택 거래량이 고점대비 40% 감소하는 동안 주택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그림 13).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아직 바닥을 통과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한편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해결책이 아직 없고, 소비 의지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도 여전히 저점에서 횡보 중이다. 내년 중국 경제성장을 전망치는 올해의 5.0%에서 4.5%로 한 단계 레벨이 낮아져 있다. 이는 앞으로 정책당국이 특별한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기의 회복 기울기는 V자형 보다 U자형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12 30개 주요도시 주택 거래량: 부진한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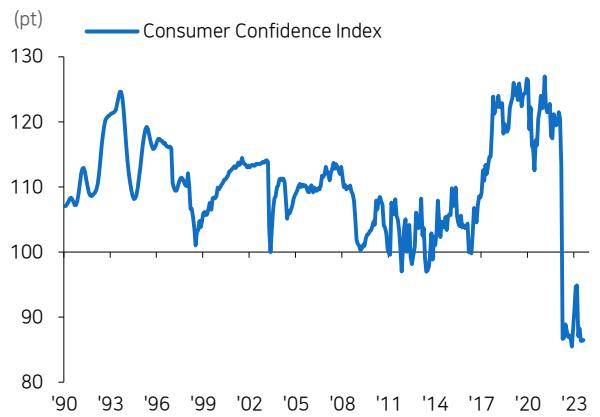
자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중국 주택 거래량 급락에도 가격은 아직 견조



주: 거래면적은 12개월 합산 이동평균 기준, 주택가격은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8월 중국 소비자신뢰지수도 여전히 저점에서 횡보



자료: 국가통계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중국 경제성장을 전망치: '24년 4.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중관계 개선 조짐: APEC 미중 정상회담은 1차 변곡점

고무적인 것은

미중갈등의 단계적 완화 가능성↑

중국 내에서 뚜렷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019년 연초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중단되고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CSI300지수가 1월 끝 4월 초까지 38% 급당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1월 APEC 정상회담이
1차 변곡점

이런 맥락에서 오는 11월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1차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올해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과 소통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 정해진 회담은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작년부터 미중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작년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고점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그림 16). 특히 내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경기 침체 등 위기에 몰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나 모두 외교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에 모두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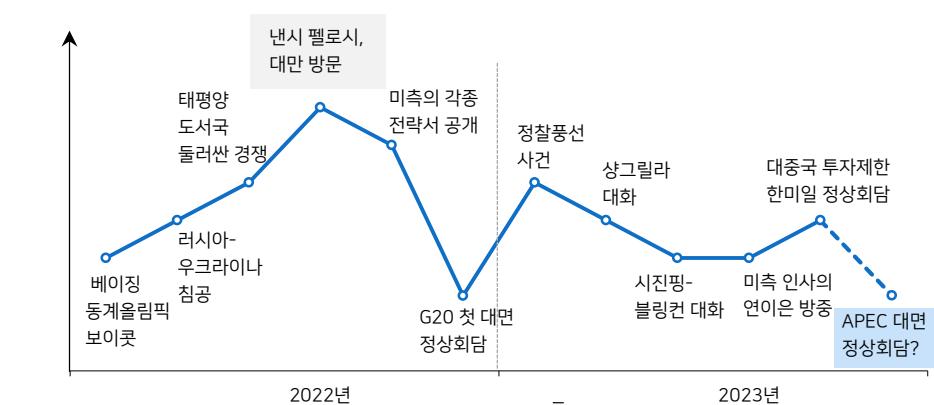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복잡해진 미국의 외교관계 셈법

게다가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만약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아태지역에서도 전쟁이 난다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은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당분간 급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과 전술적인 완화더라도
그 자체가 진전 있는 것

물론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가 계속되는 등 양국 모두 실질적으로 양보할 마음이 없어 회의 결과는 전술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조차도 진전이 있는 것이기에, 위안화 약세 방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6 2022~2023년 미중관계 주요 이벤트 및 긴장도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주식 다중바닥 형성, 전술적 낙관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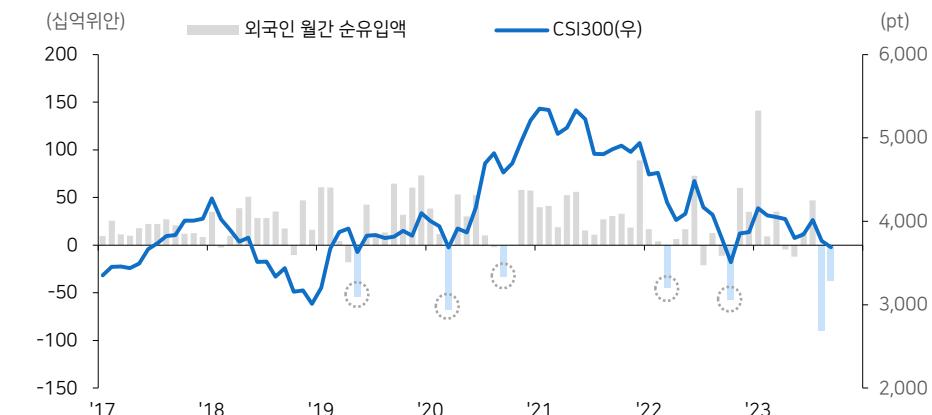
과거 다양한 악재로 외국인 자금
월간 크게 유출된 적 5번. 이후
3개월 평균 반등폭 10~13%

과거 경험상 중국 주식시장이 다양한 악재에 노출되며 외국인 자금이 크게 유출된 적이 2019년 이후 5번 있었다(그림 17). 매번 자본 순유출과 함께 당월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했지만, 그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주식시장은 대부분 올랐다. 지수 상승폭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자본 순유출 이후 3개월의 평균 수익률이 평균 10~13%에 달하며 가장 양호했다<표 1>.

현재 가격에서 전술적 낙관:
경기 추가 악화 제한적 및
미중갈등 완화로 단기 반등 기대

올해 8월 컨트리가든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 중심의 크레딧 리스크로 외국인은 2개월째 중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2개월 연속 순매도는 과거에 없었던 만큼 취약한 투자심리를 반영한다. 물론 중국 중장기 경기가 구조적 둔화라는 큰 장애물을 넘지 못해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10월에도 추가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9월 외국인의 순매도액이 8월보다 줄었고, 중국 경기 추가 악화 가능성 제한적 및 미중 갈등 완화 등 대내외 변수를 감안하면 향후 중국시장은 추가 하락보다 상승 확률이 더 높다. 과거 경험을 적용해 연말까지 평균 10~13%의 지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전술적 낙관 전망을 제시한다.

그림17 외국인의 중국 본토주식 월간 순매입액과 CSI300 지수: 대규모 유출 후 시장 반등



자료: 상해 · 심천 증권거래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2019년 이후 월간 외국인 대규모 자금유출 이후 기간별 중국 주요지수 주가 수익률 비교

		유출액 (십억위안)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CSI300	HSCEI	MSCI CHINA	CSI300	HSCEI	MSCI CHINA	CSI300	HSCEI	MSCI CHINA	CSI300	HSCEI	MSCI CHINA
May-19	· 화웨이 재재	-53.7	5.4	7.3	4.8	4.7	1.7	-2.9	5.5	7.4	-0.8	6.5	10.1	-8.0
Mar-20	· COVID19	-67.9	6.1	6.3	4.6	13.0	14.2	1.7	24.4	27.6	-2.1	37.0	41.2	14.4
Sep-20	· 미중갈등 재점화	-32.8	2.4	5.3	3.9	13.6	11.1	14.3	10.0	10.7	16.8	6.1	-8.6	-7.1
Mar-22	· 상해 락다운	-45.1	-4.9	-4.1	-3.0	6.2	2.2	1.9	-9.9	-21.4	-21.4	-4.1	-6.8	-7.4
Oct-22	· 락다운연장 시 권력 강화	-57.3	9.8	29.6	29.1	18.5	52.3	50.3	14.8	35.3	35.7	-	-	-
Aug-23	· 크레딧리스크	-89.7												
단순 평균(%)		-57.7	3.8	8.9	7.9	11.2	16.3	13.1	9.0	11.9	5.6	11.4	9.0	-2.0

주: MSCI CHINA 주가 수익률은 달러 기준 / 자료: 자료: 상해 · 심천 증권거래소, Wi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칼럼의 재해석

김민영 연구원

'스위프트노믹스(Swiftonomics)',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WSJ)

22년 3월부터 투어를 진행 중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의 공연당 총 수익은 1,36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상위 3개의 투어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가 역사적인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ed(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 베이지북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가 언급된다. 전반적인 지역의 관광업 회복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필라델피아 지역 호텔은 5월 콘서트를 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10월부터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 영상은 사전 예매 시작 하루 만에 미국 내 티켓 수입 2,600만 달러(351억원)을 기록하며 AMC 역사상 최대 일일 관객 수요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케이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글로벌 팝스타 대비 상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영향력은 상당하다. 하노이시 관광국에서 발표한 '2023년 블랙핑크 월드투어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핑크 월드투어 기간 내 숙박률 및 방문객 수는 각각 전주 대비 +20%, +15~20%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스위프트노믹스'와 마찬가지로 K-POP 아티스트 자체의 가치와 독특한 제작 시스템 등에서 발생할 경제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국내 엔터사들도 이러한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 아티스트 IP를 성장시키고 글로벌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오디션과 K-POP 시스템을 통한 IP 육성, 팬덤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 있는 IP와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IP와 팬덤에서 시작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스위프트노믹스(Swiftonomics)', 콘서트가 가져온 경제효과

22년 3월부터 투어를 진행 중인 미국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는 지난 8월까지 3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 10억 달러(1.3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의 공연당 총 수익은 1,36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상위 3개의 투어 중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가 역사적인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공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 LA SoFi Stadium(7만명 규모)을 가득 채운 '에라스 투어'



자료: The Wall Street Journal

그림2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한 콘서트 중 회당 수익 1위

투어 명칭	공연 횟수	투어 당 수익	총 수익
Elton John - Farewell Yellow Brick Road	Through 309 shows	\$2,870,000	\$887,000,000
Ed Sheeran - ÷ Tour	255	\$3,040,000	\$776,200,000
U2 - U2 360° Tour	110	\$6,690,000	\$736,421,584
Taylor Swift - Eras Tour	Through 22 shows	\$13,600,000	\$300,000,000

자료: Common Sense Institut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Fed(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 베이지북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가 언급된다. 전반적인 지역의 관광업 회복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필라델피아 지역 호텔은 5월 콘서트를 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콘서트 개최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

한편, 콘서트 기간 내 필라델피아 등 도시 방문객 수는 평균 5.4만여 명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시카고 투어 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4.3만회 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항공사 에어뉴질랜드는 24년 2월 콘서트가 열리는 호주행 비행기 예약이 급증해 항공기 14편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투어 기간 내 북미 지역 호텔 가격을 살펴보면, 신시내티(+270%), 피츠버그(+120%), 미니애폴리스(+93%), 필라델피아(+80%) 등 중서부 및 동부 도시 중심으로 평균 가격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6월 공연이 열렸던 미국 신시내티 호텔 예약률은 98%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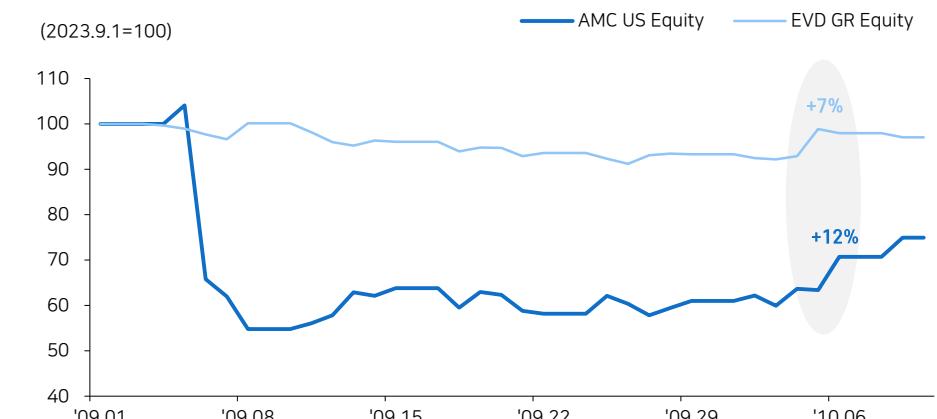
그림3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 기간 내 호텔 가격 상승률

City	Eras Avg	City Avg	Percentage Change	Price Difference
Cincinnati, OH	\$559	\$151	+270%	\$408
Pittsburgh, PA	\$476	\$217	+120%	\$259
Minneapolis, MN	\$296	\$154	+93%	\$143
Philadelphia, PA	\$370	\$206	+80%	\$164
Las Vegas, NV	\$288	\$169	+70%	\$119
Tampa, FL	\$354	\$238	+49%	\$117
Detroit, MI	\$287	\$199	+44%	\$88
Chicago, IL	\$475	\$354	+34%	\$122
Santa Clara, CA	\$339	\$253	+34%	\$85
Kansas City, MO	\$238	\$191	+25%	\$47
Nashville, TN	\$333	\$275	+21%	\$58
Atlanta, GA	\$253	\$215	+17%	\$38
Denver, CO	\$306	\$263	+16%	\$42
Arlington, TX	\$214	\$186	+15%	\$28
Glendale, AZ	\$295	\$263	+12%	\$32

자료: Nava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영화 배급사 AMC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영상을 10/13일부터 상영한다. 해당 영화 티켓은 8/31일 사전 예매 시작 하루 만에 미국 내 티켓 수입 2,600만 달러(351억원)을 기록하며 AMC 역사상 최대 일일 관객 수요를 기록했으며, 이후 사전 티켓 판매액은 1억 달러(약 1,350억원)를 돌파했다. 해당 소식과 함께 주가는 전일 대비 +12% 상승했다. 독일 티켓팅 및 라이브 이벤트 회사 CTS Eventim AG도 아레스 투어 티켓 판매량으로 인한 수익 개선 소식에 주가가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스위프트 리프트(lift;끌어올리다)', '스위프트노믹스(Swiftonomics;경제)' 등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로 촉발된 경제효과를 일컫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그림4 미국 영화 배급사 AMC Ent.와 독일 티켓팅 이벤트 회사 CTS Eventim AG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K-POP 아티스트의 경제효과

이러한 현상은 K-POP 아티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팝스타 대비 상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지역 내 경제효과는 상당하다. 와이지엔터 아티스트 블랙핑크는 22년 10월부터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를 진행했다. 하노이시 관광국은 ‘2023년 블랙핑크 월드투어 보고서’를 통해 블랙핑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언급했다. 콘서트 기간 내 하노이시 방문객 약 17만명 중 콘서트 방문객은 약 7만명으로 전체 방문객 수 중 41%를 차지했다. 숙박률과 관광명소 방문객 수 역시 전 주 대비 각각 +20%, +15~20%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2023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이 K팝 솔로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진입과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JYP의 스트레이 키즈, 하이브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기록, 그 외 세븐틴, 트와이스 등도 2위를 기록했다. K-POP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성적을 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스위프트노믹스’ 와 마찬가지로 K-POP 아티스트 자체의 가치와 독특한 제작 시스템 등에서 발생할 경제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국내 엔터사들도 이러한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 아티스트 IP를 성장시키고 글로벌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오디션과 K-POP 시스템을 통한 IP 육성, 팬덤 플랫폼 등 독보적인 기술을 통해 K-POP 영역을 확장시키고 산업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 있는 IP와 시스템을 가지고 이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IP와 팬덤에서 시작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원문: *It's Taylor Swift's Economy, and We're All Living in It*(Wall Street Journal)

How Kpop is Driving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Medium)